

지역 소식통

모기유충 구제 집중 방역

부안군보건소는 하절기를 앞두고 모기 관련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기유충 구제 방역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모기는 해빙기나 월동기가 오면 물이 있는 곳 어디에나 산란하며 겨울철 정화조는 특성상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모기가 서식하기 좋아 정화조 유충 구제는 적은 비용으로 보기 방제에 효과가 매우 크다. 특히 모기유충 한 마리를 방제하는 것은 성충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유해해충 서식 의심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역으로 해충밀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정화조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공중화장실, 집수정, 수변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원천 66대를 포함한 총 160대의 포충기에 대해 상태점검 및 점등가동을 실시한 상태다. /부안=김석진 기자

착한 임대료 상생 협약

부안군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16일 관내 건물주 2명과 착한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상생 협력해 지속 가능한 부안을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의 주인공은 성원장학회 김정기(부안군의원) 대표의 성원빌딩과 (주)비전세라믹 김광문 대표의 부안읍 동길1길 27 건물이다.

김정기 건물주는 임차인 5명에게 이달부터 3개월간 10%의 임대료를, 김광문 건물주는 임차인 4명에게 지난 3월부터 20%의 임대료를 인하여 위촉된 상인으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을 서로 분담하고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안정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배려 및 상생을 약속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첨단산업도시 탄력

PVC·PE 파이프 산업 한국 선도기업 과학산단에 '등지' 에스아이피, 1차 20억원 투자·35명 일자리 창출 기대

정읍시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기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16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신우산업의 자회사인 에스아이피(주)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투자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정읍시는 16일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신우산업의 자회사인 에스아이피(주)와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투자 유치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진섭 시장과 에스아이피(주) 김홍기 대표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에스아이피는 정읍시 첨단과학산업단지 내 7,847㎡(2,374평) 부지에 1차로 20억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모두 35여 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전망이다.

신우산업의 자회사인 에스아이피(주)는 PVC와 PE 파이프 제조 산업의 한국 선도기업으로 300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는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아이피(주)는 앞으로 파이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등에 발맞추어 금년 7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향후 관로 확대에 따른 공장을 증설할 계획도 갖고 있다.

유진섭 시장은 "이번 투자를 결정해 준 에스아이피(주)에 12만 정읍시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전한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정읍을 믿고 투자해 주신 만큼 정읍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스아이피(주)의 모기업인 신우산업(주)은 1968년 창립 이래 우리나라 합성수지 파이프의 선구자인 기업이다.

상수도관과 전선관, 광케이블보호관, 하수관 등의 생산·보급에 전념한 회사로서 국가산업 발전에 동참한 모범 기업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은 지난 14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복분자 수매기관·가공업체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고창군, 복분자 산업 활성화 '안간힘'

수매기관·가공업체 실무협

안정적 유통체계 구축 논의

고창군이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6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4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복분자 수매기관·가공업체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실무협의회의에서는 복분자 수매 물량을 가공업체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고창군 배기영 농생명

지원과장은 "고품질 복분자를 생산한 농가가 대우받고 고창농특산물 통합 브랜드 '높을고창'을 최상품 복분자에 사용할 수 있게 수매등급제 기반 마련과 농협과 가공업체의 안정적인 유통체계 마련을 위해 단일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고창군은 복분자 생산장려금 지원(500원/㎡), 최저가격 보장(8000원/kg)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지역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의 안정적 생산기반마련과 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집에서도 놀자'

온라인 부모교육 대체사업 눈길 교육영상 시청시 놀이자료 보급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른 공통 부모교육 대체사업인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을 진행한다.

이번 공통부모교육 대체사업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보건복지부의 협의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대체사업을 4월 한 달간 추진

하기로 했다. 참여는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게시된 각 범주별(총 5개 범주) 온라인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된다.

시청을 완료한 부모들에게는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놀이키트 1종을 제공(5개 범주를 모두 이수한 부모는 총 5종의 놀이키트 신청 가능) 한다.

이밖에도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을 진행하고 있는 영유아 가정에 '재미재미 꾸러미

무료배부와 장난감도서관 예약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고창군육아종합지원센터 관계자는 "기준에 실시했던 대면 부모교육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모역할 증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체사업 '집에서도 놀(면서) 자(란다)!'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센터에서는 공통부모교육 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참하나기술연구원, 정읍 투표소 46곳 공기정화기 지원

(유)참하나기술연구원(원장 최동민)이 코로나 19로부터 불안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했다.

정읍시는 (유)참하나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방역 살균 공기정화기를 지원받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투표소를 운영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참하나기술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위축된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하고, 안정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 정읍시 46개 투표소에 공기정화기를 지원했다.

이번에 후원한 방역 살균 공기정화기는 공간 입체 멸균 방역시스템으로 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온교환 등 자

체 정화기술로 세균과 먼지를 살균·제거한다.

대장균과 녹농균, 포도상구균, 폐렴균 등 세균과 바이러스를 중화하고 제거하는 데 효과가 뛰어나다.

유진섭 시장은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투표소를 방문한 많은 시민이 코로나 19 감염에 대한 불안함과 걱정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피해 기업 끌어안다

지역 내 중소기업에 손 소독제·살균소독 스프레이 등 지원

정읍시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 해소와 감염병 극복을 위한 비상 대응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관련 신고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직·간접 피해업체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자금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지원 확대 등의 자체 추진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지역 내 중소기업의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방역물품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 지원으로 지역 내 중소기업에 코로나19 방역 소독약품 1,000여 개를 배부한 데 이어 손 소독제와 살균소독 스프레이 등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물품은 '2019 기업

하기 좋은 전북만들기'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 도지사 기관 표창과 함께 받은 인센티브 중 2,500만 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인센티브가 교부됨에 따라, 시는 코로나19 예방에 필요한 손 소독제 1,200개와 소독용 스프레이 1,600개, 손 소독 비누 1,600개 등을 구입했다.

시는 17일 1담당제를 통해 신속하게 배부하고, 동시에 방역·점검·예방수칙 안내를 추진하는 등 코로나 19 차단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기업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소비 심리의 위축뿐만 아니라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에도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코로나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